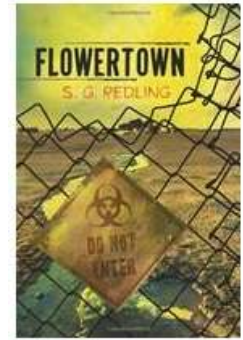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FLOWERTOWN
가제 : 플라워 타운
저자 : S.G. Redling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2년 6월 19일
분량 : 378 페이지
장르 : 소설



유독성 농약 유출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세상과 단절된 격리 구역에서 벌어지는 일들

“물이 갈색이야, 젠장.” 엘리 카울리는 복도 바닥에 담배를 밟아 끄면서 혼잣말을 내뱉었다. 벌써 30분째 이려고 있다. 머리는 겨우 하나로 묶었지만 기름기 때문에 금발이 한층 어두운 색으로 보였다. 어서 냄새를 씻어내고 싶었다. 어젯밤, 구리와 염소를 섞어 놓은 것 같은 요상한 냄새가 배어 나오던 그의 살 냄새가 아직도 생생하다. 엘리 자신에게서도 풀 냄새와 비슷한 악취가 났다. 사실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갈색으로 나오는 물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풍기는 게 있을까. 한 젊은 엄마가 아이들을 우르르 몰고 샤워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엘리는 물이 갈색이라고 알려 주었다. 샤워실에서 나오던 또 다른 여자 한 명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얼마 후 아래 위층 전체에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마다 욕실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들이 새어나왔다. 엘리가 화장실 앞을 지나는데 그 앞에서 다투는 커플도 보였다. 화장실 안쪽에서는 누군가 토하는 소리도 들렸다. 좁은 방안으로 들어온 엘리는 방안 욕실에서 지지분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기름기 가득한 머리카락이 고무줄에 덜렁 묶인 채 목덜미에 늘어져 있다. 목욕 가운을 벗고, 침대 옆에 벗어둔 옷더미 속에서 몇 개를 집어 들어 냄새를 맡아보았다. ‘플라워 타운’ 좋아하시네.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 꽃이 대체 어딴냐고.

생존자들에게 제공된 이상한 약물과 그로 인한 묘한 체취... 배신과 음모, 드러나는 진실

아이오와 주 어느 교외 마을에서 ‘페노 케미컬’이 개발 중이던 유독성 농약이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오염 지대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국방부가 마련한, 의료 시설이 갖추어진 격리 구역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야 했다. 그런데 생존자들에게 농약의 독성 물질을 몸에서 내보내기 위한 강력한 약물이 투여된 이후부터, 이들의 몸에서 묘하게 달콤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세상은 이 격리된 오염 지역을 ‘플라워 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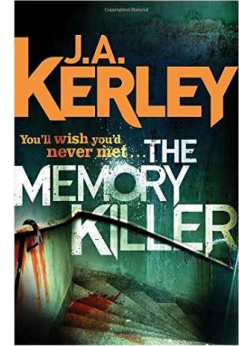
이라고 불렀다.

사고가 난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지역 기반시설은 모두 기능을 잃고 생필품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사람들은 비위생적인 상태로 살아야 했다. 엘리 카울리도 이런 상황에 점점 무너져 가는 자신을 느끼며 견디고 있었다. 같은 방을 쓰는 절친한 친구는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 편집증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며 갖가지 의혹을 제기했지만 엘리는 딱 세 가지에만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었다. 늘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일, 최근 가까워진 한 군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최대한 무시하는 것. 하지만 생존자들에게 투여된 그 이상한 약 때문에 불길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엘리는 친구가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플라워 타운'에 뭔가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곳곳에서 탐욕과 누군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한 악영향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엘리와 격리 구역에 살고 있는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위험한 목표를 가진 누군가에게 배신당했고, 감춰져 있던 계획이 이제 막 현실화되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엘리는 이제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무기인 분노를 이용해 그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다. 2012년 출간 후 수십 만 권이 판매된 작품으로 독일어로도 번역됐다.

<저자 소개>

S. G. 레들링(S. G. Redling)은 조지타운 대학교를 졸업한 후 WKEE-FM에서 라디오 아침 방송을 15년간 진행해왔다.

제목 : THE MEMORY KILLER
가제 : 기억 살인자
저자 : J.A. Kerley
출판사: Harper
발행일: 2015년 10월 27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소설



마이애미에서 벌어진 납치 고문 사건, 이상한 약물을 먹고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들
“사랑스러운 여러분, 오늘 밤 이곳에 와주셔서 너무 기뻐요. 저 브리아나가 감사 인사를 전할게요!” 붉은 색 커튼이 쳐진 무대 위에 선 주인공이 한껏 과장된 몸짓으로 양손을 펼치며 키스를 날렸다. 정말 여자였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였으리라. 크고 깊은 눈에 짙은 속눈썹, 가느다란 체형, 통통한 장밋빛 입술까지. 허벅지 위까지 길게 벌어진 드레스 틈 사이로 곧게 뻗은 다리와 아찔한 하이힐이 돋보였다. 노래가 흘러나오고 브리아나는 관중들에게 윙크를 보냈다. 수많은 게이 남성들이 무대 주변에 모여들어 브리아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흠 안은 갖가지 알코올과 향수, 대마초 냄새가 가득하다.

“이봐, 웨이터!” 클럽 안 어두운 곳에 자리한 작은 테이블에서 데브로가 손을 흔들며 외쳤다. 어떻게든 웨이터와 눈을 마주치려고 애써보지만 그는 다른 테이블 주문을 받느라 정신이 없다. 몇 번이나 소리친 다음에야 겨우 불러들인 웨이터에게, 데브로는 브리아나가 제일 좋아하는 술이 뭐냐고 묻는다. 클럽에서 가장 비싼 샴페인이라는 대답이 돌아오고, 데브로는 샴페인 잔과 함께 갖다달라고 주문한다. “형, 저 기집애 보여?” 술을 기다리는 동안, 데브로는 어둠 속에서 홀로 속삭였다. “브리아나가 오늘 밤 우리 집에 가게될까?”

잔과 샴페인이 테이블에 도착하고, 데브로는 한 잔 따르고는 웨이터가 자리를 뜨자 윗웃 주머니에서 휴대전화와 함께 액체가 들어 있는 작은 용기 하나를 몰래 함께 꺼낸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액체를 샴페인 잔에 비우면서, 다른 손으로는 휴대 전화를 들고 버튼을 눌러댄다. 다른 사람들 눈엔 영락없이 그냥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무대에서 내려온 브리아나가 홀로 들어서고, 추종자 여럿이 보낸 선물들과 술잔들이 테이블에 수북하게 쌓였다. 빨갈게 칠한 긴 손톱을 들고, 브리아나는 ‘어느 것을 고를까요’ 놀이라도 하듯 술잔 사이사이를 헤매며 고민에 빠졌다. 지금이다. 데브로는 심호흡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나 혼잡한 틈을 헤치고 브리아나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시선을 브리아나에게만 고정된 채.

교활하고 치밀한 납치범, 점점 가혹해지는 고문의 수위... 살인을 막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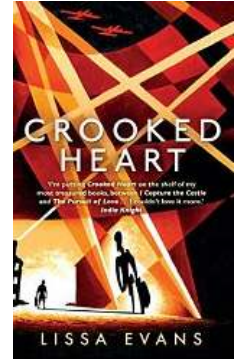
마이애미에서 젊은이들에게 여러 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몰래 먹이고 납치한 후 고문하는 사건

이 발생한다. 이 알 수 없는 악물 때문인지 납치범에게서 풀려난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게 된 칼슨 라이더 형사는 범인의 이름, 키, 나이, 피부색깔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짓말처럼 범인은 그의 수사망을 버성난다. 칼슨은 범인의 동생인 제레미를 취조하기 시작하는데 제레미도 역시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감옥 수감자였다. 그런데 제레미가 보이는 이상한 행동들이 납치 사건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피해자들에게 행해지는 폭력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고문이 살인으로 번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 칼슨 형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독자들을 사로잡을 소름 끼치는 스릴러라는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작품은 현재 독일과 일본에 판권 계약되었다.

<저자 소개>

잭 켈리(Jack Kerley)는 광고 회사에서 작가, 제작자로 일하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미국 남부 지역을 무대로 칼슨 라이더 형사가 등장하는 《The Hundredth Man》을 시리즈물로 완성했다.

제목 : CROOKED HEART
가제 : 비뚤어진 마음
저자 : Lissa Evans
출판사: Doubleday
발행일: 2014년 11월 6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소설



독일이 영국 대공습을 벌인 1940년대,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열살 고아 소년이 만난 새로운 삶
영국해협 바로 건너편에서 히틀러는 모두를 비웃듯 점차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다. 결국 런던은 위협을 느끼고, 다시 한 번 아이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한다. 이미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이들은 물론이고 이전에 한 번도 도피 행렬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이들까지 전부 포함되었다. 노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고 지난 번처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갑작스레 이끌려 떠나야 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나오는 노엘을 붙들고 마저리가 그의 짐가방을 챙기더니 제프리 삼촌이 주변을 경계하며 노엘을 데리고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죄수가 호송되는 모양새였다.

세인트 팅크라스 역. 정전 조치로 운동 시커먼 역에서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열차 안은 노엘이 싫어하는 반 아이들이 한 가득 앉아있다. “자, 다들 모였구나.” 웨어링 씨가 객실로 와서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우리 어디로 가나요?” 누군가가 질문하자, 그는 대답했다. “글쎄, 다들 쉬쉬하는구나. 자정쯤 내리면, 스코틀랜드 북서부 해안쪽으로 걸어서 계속 이동하게 된다.” 노엘은 창문에 볼을 대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런던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열차가 어느 다리를 통과하는 동안, 다리 아래쪽 도로에 군인들을 가득 태운 트럭 한 대가 지나갔다. 히틀러가 공격을 시작하면 런던은 나치로 가득해 지고 모두가 독일어를 배워야 하겠지, 노엘은 혼자 생각했다.

1940년 런던. 휴전은 끝났다. 독일의 기습공격에 대비해 시 전체에 전기 공급이 끊기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열살 소년 노엘은 런던 북서부 햄스테드 히스에서 괴짜 대모인 매티와 함께 살았다. 과거 여성들의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에서 선봉에 서며 누구보다 날카로운 정신을 자랑했던 매티는 얼마 전부터 치매가 찾아와 서서히 온전한 생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공습의 위험이 엄습하면서 노엘이 다니던 학교 친구들은 런던 외곽으로 이리저리 도망 다녔지만 노엘과 매티는 그 혼란 속에서도 둘만의 규칙대로 차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절망에 빠진 미망인과 소년의 협력, 비극적인 상황을 위트와 날카로운 통찰로 그린 블랙코미디
사실 노엘은 조금 특별한 아이였다. 고아에, 혼자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고, 소아마비로 발을 절

룩거리는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항상 정부가 하는 일을 힘껏 비웃는 대모의 신랄한 비판을 들으며 자란 노엘은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가 좋은 것은 물론이고 현재 학년보다 훨씬 수준 높은 교육과정도 다 통달한 아주 영특한 아이였다. 노엘의 눈에 다른 아이들은 하나같이 멍청해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말수가 적고 절룩대는 걸음걸이 때문에 우스꽝스러워 보였기 때문인지, 강제로 런던을 떠나 대피 행렬에 오르게 되자 그를 새로 입양하려는 집을 찾기가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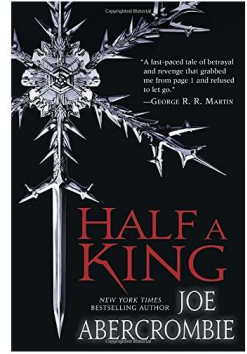
런던을 떠나 끌려가듯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 노엘. 마침내 세인트 올번스에서 그를 돌봐줄 새로운 집을 찾는다. 베라 세지라는 새로운 대모. 서른여섯의 그녀는 빛에 짓눌려 늘 돈에 쪼달리는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다. 늘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서두르다 사고를 치고, 겨우 잠잠해질 즈음 또 다시 사고를 쳐서 사태를 악화시키기 일췌였다. 런던을 향한 독일의 폭격과 더불어 전쟁이 시작되자 혼란 틈에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많아졌다. 베라는 다시 조급해지지만, 그녀에겐 냉정하고 차분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노엘이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이다. 혼자였다면 더 큰 재난만 만들었을 것이 뻔했지만 베라와 노엘은 그렇게 한 팀이 되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 노엘도 그녀를 도우며 삶에 대한 흥미를 조금씩 되찾는다.

하지만 전쟁통에 돈을 벌려는 사람은 한 둘이 아니었다. 이윤을 노리고 뛰어는 사람들 중에는 위험한 자들도 많았다. 노엘은 안전을 위해 살던 집도 떠나왔지만, 사실상 더 위험한 곳에 온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고 만다. 조조 모에스와 닉 혼비, 그리고 많은 평단의 극찬을 받은 휴먼 드라마로 감동과 웃음,

<저자 소개>

리사 에반스(Lissa Evans)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소설과 그림책을 여러 권 발표했다. ‘오렌지 상(Orange Prize), ‘카네기 메달(Carnegie Medal)’ 등에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목 : HALF A KING
가제 : 절반의 왕
저자 : Joe Abercrombie
출판사: Harper Voyager
발행일: 2014년 7월 3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소설



<워싱턴포스트> 2014년 최고의 도서의 하나로 선정된 환타지 3부작, 그 첫 번째 이야기

게트랜드의 둘째 왕자 야비가 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 밤, 바깥에는 거센 돌풍이 일었다. 건물의 모든 틈새, 열쇠구멍까지도 예외 없이 새어 들어온다고 해서 게트랜드 사람들이 ‘수색하는 바람’이라고 부르는 날카로운 바람은 왕비가 거처하는 방의 좁은 창에도 몰아쳤고, 쇠로 된 창틀까지 흔들릴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다. 야비는 그런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될 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채 왕비인 어머니와 곧 있을 각료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제 전 더 이상 야비 ‘왕자’로 불릴 수 없겠군요.” 실망보다는 뭔가 안도하는 듯한 그의 말에, 어머니는 미소로 대답했다. “근육이나 키우는 멍청한 자들이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한다 해도, 너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하고, 평화롭게 나라를 이끄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야기할 수 있을거야.”

게트랜드의 왕자 야비는 어느 날 아버지와 형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갑작스럽게 왕위를 이어 받게 된다. ‘블랙 체어’로 불리는 왕좌는 그가 한 번도 원한 적이 없는 자리였다. 왼손이 기형인 야비는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늘 부족한 아들이었고, 스스로도 위축된 채 살아왔다. 손 때문에 방패를 칠 수도, 도끼를 휘두를 수도 없었으니 말이다. 대신 생각과 지성을 그 누구보다 날카롭게 갈고 닦았다. 왕위와 멀리 떨어져 살았던 긴 세월 동안 영리한 야비는 공부에 몰두하면서 정치와 행정을 연구하고 지식을 쌓았다. 그래서 어느 날 눈 앞에 놓인 왕좌 앞에서도 야비는 자신을 ‘절반의 왕’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아버지의 동생이자 아내의 아버지이기도 한 삼촌 역시, 야비에게 왕위를 넘겨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결국 삼촌은 쿠데타를 벌여 야비를 몰아내는데 성공하고, 야비는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친다.

왕위를 두고 벌어진 비극적인 죽음과 탐욕, 생생한 묘사 속에 빠르게 전개되는 복수

이웃 나라인 밴스터랜드 사람들 손에 노예로 팔리고 만 야비. 또 다시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 속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던 그는 이 모든 불행을 만든 자들에게 복수하고 빼앗긴 왕관을 되찾기로 결심한다. 비록 멀쩡한 손은 하나 뿐이지만, 야비는 아버지와 형을 죽인 원수를 반드시 찾아내고 성공적으로 복수하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기 시작한다. 위축된 채 살던 나약한 청년에서 완숙한 인물로 다시 태어난 야비는, 삼촌을 공격하고 다시 왕좌에 앉는 뺨한 수순이 아

닌,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교묘한 계획으로 복수를 꿈꾼다. 책략에 빠져 쫓겨난 자와 쫓아낸 자, 속임수와 온갖 우여곡절, 비극적인 사건들 속에서 야비는 빼앗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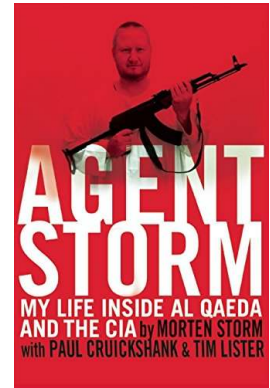
총 3부작으로 계획된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브라질, 폴란드, 불가리아, 러시아, 크로아티아, 대만, 중국 등 영어를 제외한 11개 언어로 번역될 예정이다. 2권 《Half The World》와 《Half A War》는 각각 올해 2월과 7월에 출간될 계획이다.

<저자 소개>

조 아베크롬비(Joe Abercrombie)는 프리랜서 영화 편집자로 다큐멘터리, 라이브 공연 등을 기획, 제작했다. 《THE BLADE ITSELF》, 《BEFORE THEY ARE HANGED》, 《LAST ARGUMENT OF KINGS》 등의 작품을 발표했고 《Best Served Cold》는 장기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NON-FICTION

제목 : AGENT STORM
부제 : My Life Inside al Qaeda and the CIA
가제 : 스톰 요원: 알카에다의 이중첩자
저자 : Morten Storm, Paul Cruickshank, Tim Lister
출판사: Atlantic Monthly Press
발행일: 2014년 8월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전기



<캡틴 필립스>, <본 시리즈>의 감독 폴 그린그래스가 영화화를 맡은 실화

모르텐 스톰은 지하드 요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거대한 체격과 하얀 피부, 붉은 머리칼을 가진 덴마크인인 그는 10대 시절을 문제아로 지내 왔다. 터키와 이란, 팔레스타인 출신의 이민자들로 구성된 갱단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고 그 때부터 자신을 언더독과 동일시했다고 고백한다.

21세이던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전기를 읽게 된다. 명분을 위해 싸워나갔던 그의 삶에 흥미를 느낀 그는 수니파 무슬림 단체들과 친분을 쌓고 결국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된다. 그는 이슬람 교도들에 둘러싸여 삶의 목적을 찾고자 했다. 그는 예멘의 극단주의 교육기관인 마드라사에 나가게 되고, 그의 아들 이름을 오사마로 짓거나 미국 태생인 알 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의 지도자인 안와르 알-알라키가 이끄는 테러리스트 집단과도 친목을 쌓게 된다. 그는 당연한 수순처럼 지하드 요원이 되어 훈련을 받은 뒤 각종 임무에 투입된다. 그렇게 생활한 지 10년이 지나자, 그는 민간인들을 살해하거나 해를 입히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기 시작한다.

결국 그는 극단적인 삶을 버리고 CIA와 덴마크, 영국 정보기관의 이중 첩자가 될 결심을 하게 된다. 그는 수니파 무슬림 단체와 정보기관들의 대테러 임무에 이중으로 참여했던 10년간의 생활을 보여준다. 이 책은 누구도 알지 못했던 지하드 요원들의 세계를 깊게 파고들 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을 위한 준비를 마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일상을 보여준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알카에다 지도자들과 함께 드론 공격을 피하거나, 영국에 있는 극단주의자들을 위한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케냐에서 무기 공급을 돕는 등의 활동들을 담담히 그려낸다. 또한 요주의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하는 작전에 참가하여 전세계를 돌아다니거나 정보 기관들의 구체적인 작전에 참가하는 등 그의 이중 첩자로서의 위태로운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알카에다와 정보기관을 오가며 이중첩자로 살아온 남자의 고백록

하지만 알카에다나 정보기관에 대한 그의 묘사는 그리 친절하지만은 않다. 독자들은 실제 그가 녹음하거나 자료를 수집한 내부 정보들을 볼 수 있으며, 이 책은 독자들을 헤어날 수 없게 만드는 독특하고 긴장감 넘치는 현실적인 회고록이다. 영화 대본을 보는 듯한 현장감과 독자들을 사로잡는 흥미진진함으로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Guardian, Telegraph 등 많은 언론의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으로, 현재 영국, 프랑스, 크로아티아, 폴란드, 네덜란드, 체코, 스페인, 독일, 로마니아 등 9개국에 판권 계약되었다.

<저자 소개>

저자인 Morten Storm은 갠단 소속 바이커이자 무슬림 활동가로서 지내다가 CIA와 MI6, PET 등 세계 정보 기관의 첩자로 활동해왔다. Tim Lister와 Paul Cruickshank는 CNN 소속 기자로서 스톰의 이야기에서 증거를 짜맞추고 유기적으로 연결해내어 한 편의 탐사보도와도 같은 회고록을 완성시켰다.

제목: THE CHEMISTRY BETWEEN US

가제: 당신과 나의 케미스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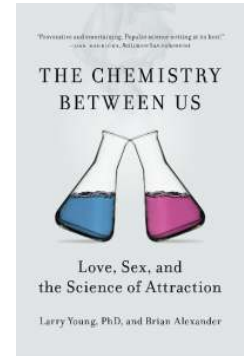
저자: Larry Young, Brian Alexander

출판사: Current Trade

발행일: 2014년 1월 28일

분량: 320 페이지

장르: 건강



신경 과학자와 저널리스트, 두 저자에게 듣는 욕구, 섹스, 사랑의 근원과 원리에 관한 이야기

인류는 이 세상에 존재한 시초부터 욕구와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 당혹스러운 감정을 느끼며 살아왔다. 대체 무엇이 그런 감정을 만들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에 빠질까? 그러다가 다시 물러서게 되는 건 뭘까? 사랑에 있어서 그토록 멍청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사랑을 표현하고, 자신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에게 다가서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일처주의는 대체 무엇일까? 서로를 끈끈한 관계로 엮어주는 요소는 무엇이며, 둘의 관계가 그토록 단단하다면 속이고 배신하는 일은 왜 생길까? 왜 남자들은 아기처럼 굴까? 그리고 이 모든 의문과 해답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까닭은 무엇일까?

두 저자는 위의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사랑, 섹스, 성별, 성적 지향성, 가족의 삶을 정의하는 대통합 이론을 소개한다. 특히 신경 과학자인 저자는 살아있는 뇌의 내부에서 그 복합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화학적 반응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상세히 설명해준다. 분자 수준으로 내려가서 생각하면, 사랑은 전혀 신비한 일이 아니다.

사랑에 관한 실제 사례, 전 세계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두 저자가 얻은 통찰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아마도 독자들에게 아주 참신하게 다가올 것이고, 다소 논란이 될 수도 있다.

- 사랑은 중독 행위다.
- 사랑에 빠진 여자는 남자를 자기 자식처럼 여긴다.
- 사회가 성적 역할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거짓이다. 몸의 성별과 뇌의 성별은 다를 수 있다.
- 유난히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있다.
- 때로는 유혹에 전혀 저항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까? 신비의 영역에 감춰진 사랑의 원리를 한꺼풀 벗긴 책

이와 함께 두 저자는 동성 결혼부터 한부모 가정이 사회 전체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본 성과 사랑의 의미를 전하고 과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와 새로이 밝혀진 사실을 자세히 전한다.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다른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된 수많은 연구 결과를 비교하고 대조하여 인체의 각종 화학물질이 성, 사랑, 욕구와 관련된 행동을 어떻게 제어하고 영향을 주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가령 대초원 들쥐로 불리는 동물은 사람처럼 암컷과 수컷이 서로 한 쌍을 이루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놀랍게도 ‘혼외정사’가 일상적으로 행해진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혼’이라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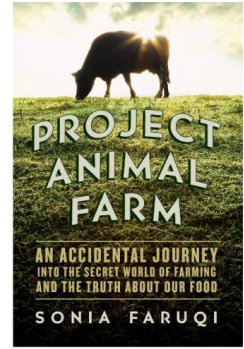
우리는 사랑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읽고 나면 그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좁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 사람의 인생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좌우하는 사람과 사람의 유대관계는 우리의 모든 의사선택에 영향을 주지만, 알고 보면 뇌에서 몇 가지 분자가 작용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다. 미스터리라는 베일에 감춰진 사랑의 진실을 최신 사회과학, 신경과학적 내용을 토대로 밝혀낸 흥미로운 책이다.

<저자 소개>

래리 영(Larry Young)은 에모리 대학교 의과대학의 ‘사회적 신경과학 중개센터’ 대표이자 정신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더불어 여키스 국립 영장류 연구센터의 행동 신경과학 정신질환 분과를 담당하고 있다.

브라이언 알렉산더(Brian Alexander)는 수상 경력이 있는 저널리스트로 《Rapture: How Biotech Became the New Religion》, 《America Un-zipped: The Search for Sex and Satisfaction》 등 여러 편의 저서를 냈다.

제목 : PROJECT ANIMAL FARM
가제 : 동물농장 프로젝트
저자 : Sonia Faruqi
출판사: Pegasus
발행일: 2015년 7월 156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에세이



축산농장의 지지분하고 처참한 실상, 세계 곳곳 인간의 손에 길러지는 동물들이 처한 비극적 환경

마이클과 아이린 부부가 운영하는 어느 낙농장에 간 소니아. 아이린은 처음 만난 소니아에게 농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털어놓는다. 소니아가 그 이유를 묻자, 지난 30년간 농장 일을 하면서 질려버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계속 몇 년씩 미루다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다고 말이다. 소니아는 녹슬고 지지분한 세간살이로 가득한 농가의 먼지투성이 방에서 슴쓸한 마음을 안고 겨우 잠을 청하고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농장을 보러 나갔다. 65마리의 소가 헛간 하나에 모여 있었다. 대부분 검은 바탕에 흰 얼룩무늬가 있는 소들로 몸무게가 평균 394 킬로그램이나 나가는 거대한 체구였다. 소니아가 헛간 안으로 들어서자, 소들은 한 마리씩 차례로, 마치 경례하는 군인들처럼 줄을 서기 시작했다. 손을 뻗으니 살짝 냄새를 맡고 훑아보는 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화들짝 놀랐다. 몇몇은 얼마나 놀랐는지 ‘살 떨리게’ 펄쩍 뛰며 뒷걸음질치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뒤로 가지는 못했다. 목에 쇠줄이 꼭 매어있었으니까. 칸막이로 나누어진 좁은 구획마다 한 마리씩 들어있는 소들의 모습은, 마치 발을 아주 작은 신발에 구겨 넣은 모양을 떠올리게 했다. 그 협소한 공간에서 소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은 단 몇 가지뿐이었다. 우물우물 옥수수나 건초를 먹거나, 자동 급수장치가 연결된 파란색 그릇에 담긴 물을 훑아먹거나, 옆 칸과 분리된 철재 파이프에 코를 비비거나, 옆 칸에 있는 소의 몸을 훑고 그 동무의 목에 자기 머리를 기대는 것이 전부였다.

저자는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스물 다섯 어린 나이에 월스트리트의 어느 잘 나가는 투자은행에서 역대 연봉을 받으며 근무해오다 금융 시장이 붕괴되면서 갑자기 여가 시간이 많아졌다. 뭘 할까, 고민하던 저자는 2주 일정으로 한 유기농 낙농장에서 팜스테이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작은 농장에 도착한 첫 날이 이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 그녀는 농장에서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제자리에 묶여 공포에 사로잡힌 소들, 육식을 하는 닭들, 아무데도 못 가는 ‘방사’ 칠면조들... 동물들의 참담하고 잔혹한 생활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뒤, 저자는 그 암울한 현실에서 서둘러 도망치는 대신 더 많은 실상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전 세계 축산업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어두운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찾아나섰다.

직접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보고, 듣고, 생생하게 느낀 축산업의 현재와 미래

캐나다의 달걀 창고, 미국의 젖소 사육장, 말레이시아의 돼지 사육시설, 멕시코의 공장식 양계장, 발리의 힌두교식 사육장과 벨리즈 메노파 교도들이 운영하는 목초지까지, 저자는 전 세계를 돌며 발견한 축산업의 현 주소와 실체를 이 책에서 생생하게 전한다. 그 길고 험난한 여정을 통해 저자는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동물들 위하는 길은 곧 사람의 건강과 환경, 그들을 기르는 농민들과 소비자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한다. 저자가 가슴 깊이 느낀 있는 그대로의 감상과 생각들, 그리고 농장 문 뒤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일들을 듣고 함께 느낄 수 있다. 저자의 말처럼 그 일들은 우리 삶의 일부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결코 인간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저자 소개>

소니아 파루키(Sonia Faruqi)는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뉴욕의 투자은행에서 근무했다. 축산 동물의 생활환경 증진을 위한 일에 뛰어들면서 수 차례 강연을 했다.

제목 : STARVATION HEIGHTS

가제 : 극단적 단식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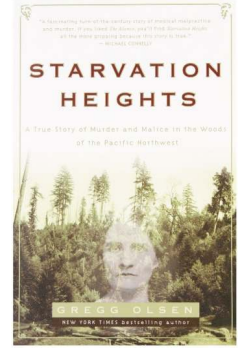
저자 : Gregg Olsen

출판사: Warner Books

발행일: 1997년 4월 1일

분량 : 448 페이지

장르 : 역사



미국 북서부에서 1911년 실제로 벌어진 의학적 살인사건, 그 충격적이고 잔인한 이야기

1910년 9월, 발목까지 내려오는 새틴 드레스에 높이 치솟은 모자를 쓴 두 여성이 연신 부채질을 하며 ‘앰프레스 호텔’ 로비에 들어섰다. 완성되지 2년 밖에 안 된 캐나다의 호화로운 호텔이었다. 영국군 의무장교였던 아버지 덕분에 부유하게 자란 두 자매의 이름은 도로테아와 클레어. 둘은 스위스, 잉글랜드,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녔고, 워낙 순진하고 남을 잘 믿는 성격이라 두 사람을 속이려 드는 사람들에게겐 좋은 먹잇감이 되곤 했다. 은행가나 투자 전문가라고 속이고 접근하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당한 돈을 빼낼 수 있을 정도였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호텔에서 허리를 꼭 조이고 목에서 턱 밑까지 꼭 잠근 옷을 입지 않은 여자는 도로테아와 클레어 뿐이었다. 코르셋은 악마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했기에, 둘은 숨통을 조이는 그런 속옷보다는 헐렁한 원피스 속옷을 즐겨 입었다. 사실 두 사람은 충분히 날씬한 몸매라 코르셋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나란히 앉아서 차잔을 마주한 두 사람의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흠 하나 없이 뽀얀 도자기 같은 피부, 녹색이 감도는 파란 눈, 상류층 특유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까지. 도로테아와 네 살 어린 동생인 클레어는 리버풀에서 출발해 길고 긴 여행을 했다. 증기선을 타고 퀘벡에 도착한 후 토론토로 이동했고, 다시 캐나다 대초원을 건너 태평양 연안을 향해 서쪽으로 이동하여 밴쿠버섬에 위치한 이곳 호텔까지 온 것이다. 두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미국 워싱턴주에 위치한 어느 요양원이었다.

영국 출신의 순진무구한 두 자매는 어느 날 미국 미시건주 배틀 크릭에서 켈로그 박사가 운영하는 식이요법에 사람들이 구름 떼처럼 모여든다는 소식을 접했다. 하지만 음식 조절과 관장을 결합하여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켈로그 박사의 방식보다는 린다 버필드 해저드 박사가 내세운 ‘단식 치료’라는 혁신적인 방식에 마음을 빼앗겼다. 단식과 스프, 운동, 관장으로 구성되는 요법이었다. 둘은 한 번 경험해보기로 결심하고 ‘해저드 자연요법 연구소’로 향하는 여행길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극도의 굶주림 치료소’로 불렸다.

영국에서 건너와 몇 주만에 죽을 위기에 처한 두 여성, 살인도 불사한 사악한 여의사의 탐욕

요양원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도로테아와 클레어는 아름답던 원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연구소를 호령하던 린다 해저드 박사는 큰 키에 커다란 턱, 공포감을 주는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는 인물로, 악랄하기 그지 없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 해저드 박사는 그 요양원에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살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고, 두 자매는 수많은 희생양 중 일부일 뿐이었다. 결국 클레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가져간 귀금속까지 모두 빼앗기고 은행 계좌에 있던 돈도 해저드 박사의 수중으로 다 넘어갈 위험에 처하자 도라는 호주에 있던 친구에게 제발 이 끔찍한 곳에서 구해달라는 구원 요청을 보낸다. 마침내 요양원에 도착한 두 자매의 가족 간호사 마가렛 콘웨이는 빼만 앙상하게 남아 죽기 일보 직전인 도라를 발견해 구출에 성공한다.

저자는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을 3년 동안 취재하면서 책, 인터뷰, 신문 기사, 서신, 재판 기록까지 방대한 자료를 모았고,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졌던 이 끔찍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되살렸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건강을 위해서라면 유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르르 몰려드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과 그 책임을 따끔하게 꼬집는다. 발표 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랐으며, 워싱턴 주립도서관과 워싱턴 국무부가 선정한 ‘모두가 읽어야 할 책’에 포함됐다.

<저자 소개>

그렉 올슨(Gregg Olsen)은 실제 범죄에 관한 비소설과 소설을 다수 발표했다. 《The Deep Dark: Disaster and Redemption in America's Richest Silver Mine》은 ‘미국 웨스턴 지역 작가상’의 비소설 역사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 밖에 《Envy》, 《The Girl in the Woods》 등을 썼다.

제목 : SECRETS & LIES: Military Intelligence

가제 : 군사 정보부, 비밀과 거짓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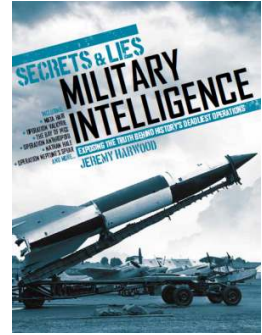
저자 : Jeremy Harwood

출판사: Apple Press

발행일: 2014년 11월 6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역사



고대 로마부터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까지, 군 정보활동에 관한 총 25건의 놀라운 이야기와 진실

군사 정보 활동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직화된 전투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2,000년도 더 먼 옛날 중국의 사상가인 손자가 쓴 <손자병법>은 짧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 손자는 그 책에 담고 싶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지력을 가진 기관, 현명한 군사 지휘부가 다른 기관이나 지휘부보다 훨씬 더 비상한 성과를 달성하는 방법’. 이어 손자는, ‘그 방법은 귀신이나 영혼의 힘을 빌어 얻을 수도 없으며, 유추할 수도 없고, 계산으로 알 수도 없다. 오직 사람이 찾아내야 하는데, 그는 군의 정황을 잘 아는 자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후에도 수세기 동안 군사 정보의 수집과 전달은 거의 ‘입으로 하는 말’로만 이루어졌다. 정찰 활동의 결과는 상관에게 구두로 전달되고, 수감자들은 심문하는 사람과 외교관에게 자신이 해외에서 습득한 정보를 말로 전달했다. 특히 로마인들은 이 구두 전달 방식을 훌륭하게 활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영토가 점점 확장되면서 특히 극동,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외교관, 무역업자, 전령, 평민들, 스파이들이 로마의 눈과 귀가 되었다.

이전 세대의 학자들은 군의 정보 활동이 르네상스 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보았지만, 이처럼 실제역사는 르네상스 시대보다 훨씬 더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시 사회부터 특정 정보 체계가 전쟁 시기는 물론이고 평화로운 시기에도 한 나라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도구로 활용됐다는 증거들도 있다. 흔히 ‘스파이’로 불리는 정보원의 활동 역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정보원 활동의 동기는 오랜 세월 동안 크게 바뀌지 않았다. 18세기에 미국인 네이션 헤일은 철저한 애국심에서 비롯된 정보 활동으로 유명한 인물이며 영국인 간호사 에디스 카벨의 사례도 매우 인상적이다. 카벨은 제 1차 세계대전 첫 해 8월, 브뤼셀이 독일군에 점령된 이후에 당시 연합군으로 참전한 영국군, 프랑스군 군인들과 벨기에인들이 벨기에를 벗어나 중립국인 네덜란드로 갈 수 있도록 돕다가 독일군에게 발각되어 결국 사형에 처해졌다. 물론 애국심이 정보 활동의 유일한 동기는 아닐 것이다. KGB 정보원으로 미국 CIA 내부에서 9년이나 스파이로 활동한 알드리히 에임스는 KGB로부터 2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았고, 추가로 200만 달러를 더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스파이로 기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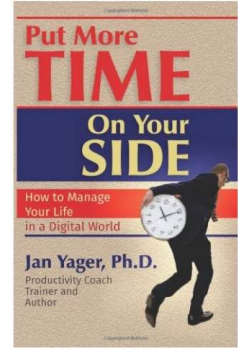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활약한 정보요원, 이종간첩, 첩보원들의 삶,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위험

저자는 이 책에서 고대 로마부터 오사마 빈라덴의 죽음까지 총 25건의 실제 군사 활동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한다. 비밀 첩보원과 간첩, 방해공작, 정찰 활동에 가담했던 영리하고 교활한 인물들의 활약 등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들을 심층 조사하고 기밀 정보 목록에서 제외된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사진 자료들과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극비리에 해낸 국제 정보원, 정보 요원들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저자 소개>

제레미 하우드(Jeremy Harwood)는 영국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출판 업계에서 수년간 일하다가 작가가 되어 《Looking Back at Britain history series (Reader's Digest)》, 《Philosophy: An Introduction (Quercus)》, 《Hidden History (Quercus)》 and 《Atlas of History's Greatest Military Victories (Sterling)》 등 여러 편의 저서를 냈다.

제목 : PUT TIME ON YOUR SIDE
가제 :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저자 : Jan Yager
출판사: Hannacroix Creek Books, Incorporated
발행일: 2014년 3월 28일
분량 : 16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빠르게 흘러가는 디지털 사회, 효율적인 시간관리가 성공을 부른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직업)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어떤 관계가 시간을 쏟을 만한 가치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가? 이 땅에 태어나 자신이 이루어야 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질문은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간 관리는 일상적인 업무와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기술이다. 시간 관리가 잘 되면 신중히 숙고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고, 위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또한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스마트폰처럼 의사소통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다양한 기술과 방법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일을 무조건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해 내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 잘못된 일을 빠른 속도로 저질러버리면, 조금 느리더라도 제대로 처리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저자는 이 책에서 한정된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그 대상을 올바르게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쫓기면서 하루가 25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25시간이 되면 또 누군가는 26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헛된 바람 대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시간 자고, 먹고 이동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6시간 내지 8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일할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이나 남는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그러나 매 시간을 대체로 보람차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던진 일과 요구를 처리하느라 의미 없이 흘러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즉각 실천에 옮기고 삶의 질과 균형, 성공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시간 관리의 핵심 원칙

저자는 이 책에서 처리해야 할 일과 과제가 점점 더 많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24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소개한다.

- 시간 관리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 정신을 빼앗고 분산되게 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 과도한 스케줄, 부적절한 처리 속도, 엉성한 계획, 꾸물거리며 질질 끄는 방식, 완벽주의 등 시간을 잡아먹고 낭비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
- 직장 내 관계와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간을 절약하는 법
- 문화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책 읽을 시간도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간단히 그 해결책을 찾고 시간 관리법을 찾을 수 있는 책이다.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 세우기, 우선순위 정하기,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요소 없애기 등으로 압축되는 시간관리 기술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사회 속에서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젠 예거(Jan Yager)는 수십년 동안 생산성에 대해 연구하고 《WORK LESS, DO MORE (2nd edition)》, 《CREATIVE TIME MANAGEMENT FOR THE NEW MILLENNIUM》, 《CREATIVE TIME MANAGEMENT》, 《PRODUCTIVE RELATIONSHIPS》, 《365 DAILY AFFIRMATIONS FOR TIME MANAGEMENT》 등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을 여러 편 발표했다.